



2023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제지(인문·체육계)

[11월 19일(토) 오전]

지원학부(과) ()

수험번호

--	--	--	--	--	--	--	--	--	--

성명 ()

<유의사항 : 아래 내용 위반시 감점 또는 0점 처리할 수 있음>

1. 답안의 작성과 정정은 반드시 본교에서 지급한 흑색 필기구를 사용하시오.
2. 답안지에 제목을 쓰지 말고, 특별한 표시를 하지 마시오.
3. 답안지에 답안과 관련된 내용 이외에 어떤 것도 쓰지 마시오(예: 감사합니다 등).
4. 제시문 속의 문장을 그대로 쓰지 마시오.
5. 답안 작성 시 논제번호(예: I, II...)에 맞춰 답안을 작성하며, 논제별 소문제번호(예: (1), (2)...)를 쓰고 이어서 논술하시오.
6. 답안 정정 시에는 원고지 교정법을 따라야 하고 수정도구(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사용은 절대 불가하므로 유의하시오.
7.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논제별 분량 제한을 준수하고 답안지는 반드시 1장만 사용하시오.
8. 지정된 답안의 작성 영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오.
9. 인문·체육계 문제지는 총 2장 4쪽입니다.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가]

오늘날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대중문화는 문화 산업의 산물이다. 대중문화에 대한 우리의 열광 역시 대중 매체와 문화 산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내 목소리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경우가 많다. 이는 특히 청소년에게서 두드러지는 문제이다. 오늘날 청소년은 가장 크고 중요한 대중문화의 소비층이고, 따라서 대중 매체나 문화 산업의 입장에서 보면 청소년은 가장 중요한 판매 시장이다. 미디어와 문화 산업은 어떤 식으로든 청소년을 공략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온갖 광고와 판매 전략을 동원해 청소년을 현혹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칫 마음을 놓으면 문화 산업의 광고 전략에 넘어가 한낱 소비자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그렇게 한낱 소비자일 뿐이면서 마치 자기 스스로 문화를 판단하고 선택한 것처럼 착각하기 쉽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그는 단지 문화의 객체일 뿐 결코 주체라 할 수 없다.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 거의 비슷한 외모와 비슷한 스타일로 꾸미면서, 거기에 비슷한 상품을 들고 다닌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당당히 '개성'을 내세운다. 도대체 모두 똑같이 하고 다니는 것이 어떻게 개성일 수 있는가. 결국 대중문화를 향유하면서 문화 산업의 목소리를 자신의 목소리로 착각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나]

노래 제목이었구나. 나는 터치 패드를 넘겨 가며 저장된 곡을 찾기 시작하는 태수의 기다란 손가락을 본다. 약간 후회스러운 기분이다. 흔들리는 버스에서 책을 읽는대거나 이어폰으로 음악 듣는 건 내 취향이 아니다. 유행가를 안 듣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좋아하는 가수도 노래도 없다.

할 수 없이 태수가 건네주는 커다란 헤드폰을 받아서 머리에 쓰며 나는 버스 안을 흠뻑 살펴본다. 무슨 음악 디제이(DJ)도 아니고 차 안에서 이런 걸 쓰고 있다니 어색하다. 태수는 곡을 못 찾은 모양이다. 혼자 중얼거린다. 어디 갔지? 지웠나? 그때 갑자기 분수대에서 떨어지는 시원한 샘물 방울처럼 또렷하고 생기에 찬 목소리가 내 귓속으로 빠르게 쏟아져 들어온다.

언제부턴가 거울을 쳐다보는 습관이 생겼지

“잠깐만.”

나는 태수의 무릎 위에서 엠피스리(MP3)를 가져다 내 손에 쥘다.

이젠 그게 너무도 익숙하니 꽤 멋진 표정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지을 수 있어

하지만 내 주위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결코 편하지 않아

그들이 내게 강요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 남자스러움 말야

난 자꾸 그럴수록 마냥 불쾌한 듯 찡그리다가 나중엔 그냥 웃지

< 뒷면에 계속 >

그 목소리는 천둥처럼 나를 전율시킨다. 가슴이 뛰기 시작한다.
이건, 내 이야기잖아!
한순간 온몸이 굳었으며, 마치 누군가의 손이 나타나서 뻗뻗해진 내 몸을 낚아채 잡아끌기라도 한 듯이, 그대로 나는 다른 세계로 빨려 들어간다.

무엇다워야 한다는 가르침에 난 또 놀라
우린 아마 이렇게 멀들어 가는지도 몰라
습관적으로 모든 일들에 익숙한 척 가슴을 펴지만
그 속에서 굼은 상처는 아주 천천히 우리들을 바보로 만들어
우리는 진짜보다 더 강한 척해야 하므로

다섯 살 때였던가, 내가 여자 옷을 입고 싶다고 말한 적 있었다. 엄마는 레이스가 달린 원피스를 사 와서 내게 입히고, 털 하든 기왕이면 예뻐야 한다면 머리핀도 꽂아 주었다. 나는 치맛자락을 날리며 들뜬 표정으로 놀이터로 뛰쳐나갔다. 놀이터를 한 바퀴 돌고 그네와 미끄럼틀을 한 번씩 탄 뒤 집으로 돌아왔다. 그뿐이었다. 그 뒤로 다시 그 원피스를 입었던가? 그건 기억 나지 않는다. 이웃 아줌마들에게 놀림은 당했던 것 같다. 고추가 떨어진다나 뭐라나. 하지만 그 한 번의 경험이 너무나 상쾌하고 신기해서 마치 우주여행이라도 한 것 같았다.

나만 그럴까. 누구나 한 번쯤 그런 옷을 입어 보고 싶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다른 존재에 대한 호기심이 흉내가 되기도 하는 것 아닌가. 한 인간의 내면에 여러 가지 다른 성격이 섞여서 들어 있다는 사실은 이상할 것 하나 없다고 언젠가 엄마도 말했듯이.

[중략]

노래가 끝났다.

나의 가슴은 터질 듯 빠르게 뛰었고 아랫배에는 잔뜩 힘이 들어가 있었다.

어쩐지 눈물이 날 것만 같아 창밖으로 고개를 돌린 나는 그제야 정류장을 지나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

방탄소년단(BTS)의 영향력은 크다. 그 영향력은 BTS의 음악적 성취와 세계적 아티스트로서의 위상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팬덤 ARMY(아미)를 움직이는 것은 BTS의 메시지다. 세상의 불평등과 폭력을 용인하지 말고, 자신을 사랑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함께하자는 메시지가 전 세계의 아미를 행동하게 했다. 단순히 대중문화를 즐기고 소비하는 팬의 입장을 넘어서, 아미는 'LOVE YOURSELF'와 'SPEAK YOURSELF'라는 BTS의 메시지에 영감을 받아 정치, 환경, 차별 등 여러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양한 캠페인을 주도하고 많은 기부를 이어오며 여러 현안에 목소리를 높여온 BTS는 아미가 현실에서 원하는 변화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격려한다. 그것이 아미가 사회적·환경적 대의를 위해 움직이는 참여자가 되는 이유다.

그 중 하나가 브라질의 Army Help The Planet(AHTP)이다. BTS의 행동에 감동과 영향을 받아 선행을 실천한다는 것이 그들의 원칙이고, '팀워크가 꿈을 만든다.'는 것이 운영 철학이다. 아마존 보존지역에 토종 나무를 심는 자금을 모으는 캠페인, 세계 최대 열대습지인 판타날 지역에서 반복되는 화재 방지 캠페인 등 환경에 대한 노력뿐 아니라 코로나19 기간 동안 의료 물자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 자금을 모으는 프로젝트도 진행됐다. 브라질에서 온 마리아나 파치롤리는 "한국의 일곱 소년은 대중문화를 통해 전 세계 수백만 명을 감동시켰고, 모든 사람이 언어, 인종, 성별, 나이, 종교적 신념의 장벽을 극복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사용하도록 격려했다."며 "아미는 그들의 목소리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사회 변화를 위한 강력한 네트워크를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미 제시카 듀허스트는 인권운동가다. 2013년 남아프리카 비영리 인권단체 '저스티스 데스크(The Justice Desk)'를 설립해 인신매매, 성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를 다루고 있다. BTS는 그가 처음 접한 케이팝 그룹이었다. "심적으로 지쳐갈 때쯤 우연히 BTS의 '낫 투데이'를 듣게 됐다. 내게 필요한 도움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불의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영감을 주었다." 이 노래는 "패배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다. 오늘 우리는 싸운다."는 RM의 랩으로 시작한다. 2017년 2월 발매된 '낫 투데이'는 사회운동에 나선 아미들에게 투쟁가와 같은 곡이다. 듀허스트는 BTS의 노래에 담긴 포용과 사랑이라는 메시지가 인권운동의 저항 정신과 맞닿아 있다고 느낀다.

< 다음 면에 계속 >

[라]

페이스북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는 사람들에게 “공유할 권한을 부여해서 더욱 개방되고 더욱 연결된 세상을 만드는 것”이 페이스북의 목적이라고 정의하면서 이렇게 썼다. “우리는 세계를 연결하는 데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를 서로 더 가깝게 합시다. 당신과 이 여정을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세계를 서로 더 가깝게 만든다는 생각이 처음부터 저커버그에게 생기와 추진력을 불어넣은 것이다. 그의 연설, 투자자에게 보낸 서한, 페이스북에 올린 글, 언론 인터뷰, 그리고 2017년 초 조용히 미국 전역을 돌아본 것은 모두 그 주제와 잘 통한다. 그는 자신의 회사가 전 세계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그 결과는 예측 가능하고 대체로 유익할 것이라고 믿었다.

저커버그는 2017년 초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개한 성명서에서 “지난 10년간 페이스북은 친구들과 가족을 연결하는 데 집중해 왔다”라고 썼다. “그 기초 위에서 우리가 다음에 집중할 것은 공동체를 위해, 우리를 지원하고, 안전하게 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사회에 대한 참여를 돕고, 우리 모두를 포함하는 소셜 인프라를 발전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저커버그와 페이스북으로서는 전환의 표시였다. 페이스북이 개인들을 연결하는 기능에 그치지 않고 시민사회의 참여, 나아가 세계를 연결함으로써 세계 평화와 공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의 표현이었다.

저커버그는 2016년 내내 페이스북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국민투표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선출에 영향을 끼친 선전 선동에 자리를 깔아주고 부추겨 왔다는 점을 인정하라는 압박을 받았다. 페이스북은 라이브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때문에 상당한 비판을 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 또는 살인 장면을 이 서비스를 통해 공개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비판에 굴하지 않고 저커버그는 2017년 성명서에서 “투표 이상으로 가장 훌륭한 기회는 사람들이 투표소에서 몇 년 마다가 아니라 날마다 중요한 문제에 잘 참여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국민과 선출된 지도자들 간의 직접적인 대화와 책임감 확립을 도울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저커버그는 이어 페이스북이 민주정치 과정에 유용하다는 점을 믿게 된 가장 놀라운 사례들을 거론했다. “인도의 모디 총리는 장관들에게 회의와 정보를 페이스북에 공유해 국민의 직접적인 피드백을 들으라고 지시했다.” 저커버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인도와 인도네시아에서부터 유럽을 거쳐 미국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으로 최근 선거에서, 페이스북에서 참여도가 가장 높은 팔로워를 가장 많이 가진 후보들이 대부분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봐 왔다. 텔레비전이 1960년대 시민 소통의 주요 미디어가 되었던 21세기에는 소셜 미디어가 그렇게 되고 있다.”

[마]

소셜 미디어가 우리에게 장려하는 행동은 온라인에서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추는 것이다. 페이스북에 “이번 주말 내내 잠옷 차림으로 시트콤을 보면서 비스킷을 열 통이나 먹었다.”라고 쓰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는 우리 삶에서 자랑스럽고 빛나는 장면, 행복한 순간, 파티, 축하, 하얀 백사장, 입에 침이 고이게 하는 음식 따위를 잘 골라서 온라인에 공유한다. 문제는 이렇게 포토샵으로 꾸며지고 필터링된 우리 자신은 우리의 진정한 자아와 근본적으로 단절되어 있을 때가 많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나는 누구일까? 내가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항상 행복하고 사교적이며 성공한 그 사람이 나일까, 아니면 때로는 실패하고 주저하고 자신 없는 누군가가 나일까? 내 친구들이 ‘가짜 나’를 더 좋아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우리의 소셜 미디어 인생을 신중하게 포장하면 할수록 프로필 뒤에 가려진 ‘진짜’ 나를 아무도 모르고 좋아하지 않는다고 느낄 위험성은 그만큼 커진다. 이것은 고립감이고 단절감이다. 캘리포니아 출신으로 독특하고 예술적인 17세 테사가 아주 적절한 표현을 썼다. “우리는 가면 갈수록 온라인 비디오게임의 아바타처럼 사는 것 같아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아바타, 바로 그것이다. 2016년 시장 조사 기업 커스터드가 영국에서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겨우 18%만이 페이스북 프로필이 자신의 정확한 모습이라고 답했다.

어쩌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필사적으로 신경 쓰고 때로는 우리의 실제 모습보다 더 나아 보이려고 일종의 연기를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일지 모른다. 어쨌든 400년 전에 셰익스피어도 “온 세상이 연극 무대”라 하지 않았는가. 특히 10대는 어느 시대에도 이러한 경향이 강했다. 캣아이 메이크업, 초미니스커트, 롱부츠, 가방에 든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내가 14세일 때 신중하게 공들여 만든 페르소나(persona, 가면)였다.

하지만 소셜 미디어의 시대에는 이 핵심적 측면에서 전통적인 인간 행동에 변화가 생겼다. 과거에 우리는 자주 연기를 멈추고 사생활 속의 진정한 자아로 돌아가곤 했다. 가령 14세의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은 화장기 없이 잠옷 차림으로 친구들과 붙어 앉아 통속 드라마를 보곤 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스마트폰을 두드리며 인생의 매 순간이 잠재적 인생샷이니 연기가 대체 언제 멈출까?

< 뒷면에 계속 >

[바]

경기도의 한 도시에 작은 빵집이 있다. 제과제빵 기능장이 정성껏 좋은 재료로 만드는 과자와 빵은 동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가게를 유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를 걱정한 빵집의 손님이 빵집이 기획한 과자 세트의 온라인 판매를 홍보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고, 장인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다과를 즐기고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돕길 원했던 SNS 사용자들의 주문이 몰려 과자 세트는 판매 목표 수량을 아득하게 뛰어넘는 사랑을 받았다. 빵집의 상호가 들어간 해시태그(#)가 생기고 '실시간 트렌드'에 등극했으며, 이를 본 다른 수많은 사용자들이 빵집의 SNS 계정을 방문했다. 주문이 하도 몰려 빵집의 오프라인 매장을 잠시 닫고 발주에 집중해야 할 정도였다. 이후 이 빵집은 인터넷 판매로 전환해 현재까지도 SNS 사용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처럼 SNS는 인터넷에서 다양한 인적 관계망을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의사소통을 도와주고,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뉴 미디어 중 하나이다. 뉴 미디어는 기술 및 의사소통 방식의 측면에서 종합화, 상호 작용성, 비동시화 등의 특징을 지닌다. 종합화는 아날로그 시대에 개별적으로 존재했던 매체들이 하나의 정보망으로 통합되는 것이다. 상호 작용성은 뉴 미디어가 기존의 대중 매체가 지닌 일방향성을 극복하고 송·수신자 간의 쌍방향성을 증진한 것이다. 비동시화는 과거에는 송신자가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이나 프로그램을 수신자가 선택하여 볼 수 없었지만, 뉴 미디어는 수신자가 자신이 원하는 시간이나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볼 수 있게 된 것을 가리킨다. 이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원하는 형식으로 손쉽게 다룰 수 있게 되었다.

특히, SNS의 상호 작용성은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쌍방향성을 강화해 모두가 행복해지는 결과를 도출한다. 해시태그는 관심 있는 키워드를 한데 모아 볼 수 있게 하면서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해주기도 한다. SNS의 사용자들은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한 정보를 얻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이들과 공유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다. 손님이 필요한 가게가 SNS를 활용해 자신들을 알리고, 자신의 취향에 맞춘 소비를 하고자 하는 손님들은 SNS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곳에 방문한다.

[사]

피드백 중독은 '좋아요' 증상이다. '좋아요'는 초를 다룬다. 접속과 동시에 누군가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거나 지속적으로 자신을 노출한다. '좋아요'는 실시간 숫자로 명기되며 인맥의 유지를 확인시켜준다. 개인 계정은 확장적 자아로 기능하면서 네트워크에 접속해 교류하고 지속적 관계 맺기를 확인받는다. 누가 클릭해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기라도 하다는 듯 불안한 침묵은 '좋아요'로부터 구원받는다. 사람들은 '좋아요'를 통해 불안을 달래고 고독을 떨쳐내고 세계와 '나'의 연약한 고리를 붙잡는다. '좋아요'를 통해 타자와 간격을 좁히다 못해 일체를 꿈꾼다. 경계가 사라지고 타자가 사라진 세계에서 자아는 구별 불가능하다. 자아는 실시간 소비사회 속에서 계산되고 소멸된다. SNS의 허구성 발견하지도, 깨부술 의지를 갖기도 어렵다. 자아가 불안한 관심과 침묵 속으로 빠져들지 못하도록 곳곳에서 모든 힘이 동원된다. 평소 팔로우해 온 셀럽, 페친, 트위터 유저의 진단과 예측을 무조건 흡수하고 그의 판단 아래, 정보의 통제를 넘어 생각의 통제를 가속화한다. 공유와 리트윗을 통해 자아를 보고 조각조각 흩어진 정보를 가용해 편리대로 이해한다. 실체를 파악하기 힘들어하는 '나' 대신 누군가 이어 붙인 이미지를 보고 본질을 파악한다. 소속감과 동일시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필연적인 소외가 발생하지만 결국 자발적 소외다. 나의 '자아'는 SNS의 물시간성에 의해 타자와 거리를 상실한 채 어쨌거나 당신이 그렇다면 나도 그렇다고 여기게 된다.

소셜 네트워크에서 나와 같은 의견을 가진 타자는 얼마든지 '추가'되고 다른 의견을 가진 타자는 '삭제'될 수 있다. 이 때문에 SNS는 대화를 가르치지 않는다. 자신과 비슷한 타자로 둘러싸인 환경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메아리 돼 돌아오는 소리에 안식을 얻고 자기 자신의 반사된 얼굴에 '좋아요'를 누르는 일종의 자기 중독에 빠진다.

[문제 Ⅰ] [다]의 시각에서 [가]와 [나]의 상황에 대해 평가하시오. [801자 이상 ~ 900자 이하: 배점 40점]

[문제 Ⅱ] [라] ~ [사]를 입장이 유사한 두 부류로 묶어 그 중 한 입장을 선택해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입장을 비판하시오. [1,001자 이상 ~ 1,100자 이하: 배점 60점]